

Feather Theology: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October 5, 2023

Aloha MPC ‘Ohana,

In many churches all around the world, the first Sunday of October is celebrated as World Communion Sunday – a day when Christians of all different kinds are encouraged to look past our narrow theological divisions and to focus on our greater unity in Christ.

Every once in a while, someone will ask me about my own personal "theology." Usually, the questioner's well-meaning intent is to find out which "camp" I'm in or which "tribe" I belong to. Am I, theologically-speaking, a liberal or a conservative? Some will offer other alternatives too - am I an evangelical, a progressive, a charismatic, a realist, a nominalist, a confessionalist, or maybe even an open theist? Am I an exclusivist, an inclusivist, or a pluralist? Am I high church or low church? Traditional, contemporary, or emergent? Fundamentalist (no), modernist, or post-modernist?

Presumably since I'm a Presbyterian minister, some inquirers will surmise that my theology "must be" Reformed (and not Arminian) in some way, shape, or form. But exactly what sort of Reformed theologian am I – a Calvinist, a Zwinglian, a Princetonian, a Barthian, or perhaps something really exotic like a Moltmannian?

These are all good questions, in so far as they go. And so whenever I'm asked, my usual response is to smile and say, "Well, whenever you think you've got my theology all figured out, please tell me what you think it is. That way we'll both know."

In saying that, I'm not trying to "dodge" the question. Instead, it's because I truly think the focus should be somewhere other than on the pastor's theology. Because I don't understand my role to be to preach "my theology" to anyone; I understand my role to be to preach the Bible in such a way that scripture comes alive inside of people's hearts and lives.

And it's been my humble experience that sometimes "labels" – even very precise theological ones – all too easily get in the way of that far more important priority.

None of which should be taken to mean that I don't care about good theology. I do.

So, have I read a lot of theology, including the great Reformed theologians of the past and present? Yes, I have; and they've taught me a lot.

But I've also read, to my spiritual profit, lots of other faithful, prayerful, erudite thinkers too, from across history and around the world. And I've prayed

with, studied with, talked with, and been schooled by all kinds of other deeply thoughtful, learned, wise, and winsome people of faith as well.

And so, because of that, if someone were ever to force me (kicking and screaming) to pick one word to describe “my theology,” the word I'd use (reluctantly) would be "feathers."

That's my wife's fault because (brace yourself) she is *not* a Presbyterian. Nan's denomination is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The Disciples of Christ movement was founded in the 1800s by several ex-Presbyterians, one of whom was a man named Alexander Campbell.

A few years ago, the fact that I'd married a Disciples of Christ minister prompted me to do some reading about Alexander Campbell. And of all the things he said, one aphorism of his resonated with me more than most. I'm paraphrasing him here, but when asked to describe his own theology once upon a time, Alexander Campbell is reported to have answered the question with a little parable. He said that, wherever he went, anytime he'd see a beautiful feather, he would pick it up and put it in his cap. *That* was his theology.

And that's my approach to theology too, in a word: *feathers*.

I suppose that, having come right out and said that, if one were inclined to be critical, one might say that that can only mean that my theology must be “for the birds.” To which my reply is: “Feathers, my friends, are what make birds fly.”

Me ke aloha,
Pastor Ron

깃털신학: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전 세계의 많은 교회에서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찬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신학적 분열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일치에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받는 날입니다.

가끔 누군가가 나 자신의 개인적인 ”신학”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의 선의의 의도는 내가 어느 ”캠프”에 있는지 또는 내가 어느 ”부족”에 속해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신학적으로 진보주의자인가, 보수주의자인가?

어떤 사람들은 다른 대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나는 복음주의자, 진보주의자, 카리스마주의자, 현실주의자, 명목주의자, 고백주의자, 아니면 심지어 열린 유신론자인가?
나는 배타주의자인가, 포용주의자인가, 아니면 다원주의자인가?
나는 높은 교회인가, 낮은 교회인가?
전통적인가요, 현대적인가요, 아니면 신흥인가요?
근본주의자(아니오), 모더니스트, 아니면 포스트모더니스트?

아마도 내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일부 탐구자들은 나의 신학이 어떤 방식이나 모양, 형태에 있어서 개혁주의(알미니안주의가 아님)여야 한다고 추측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확히 어떤 종류의 개혁 신학자입니까? 칼빈주의자, 초빙글리주의자, 프린스턴주의자, 바르트주의자, 아니면 아마도 몰트만주의자처럼 정말 이국적인 사람일까요?

이것들은 모두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보통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제 신학을 모두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실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둘 다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 질문을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의 신학이 아닌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에게나 “나의 신학”을 설교하는 것이 나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성경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역할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라벨” – 매우 정확한 신학적 라벨일지라도 – 이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너무 쉽게 방해하는 것이 나의 겸손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내가 좋은 신학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과거와 현재의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신학을 읽었습니까?
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 역사와 전 세계에서 온 다른 신실하고 기도하며 박식한 사상가들의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깊이 사려 깊고, 학식 있고, 현명하고, 매력 있는 신앙을 가진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고, 대화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 한 단어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마지 못해) ”깃털”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아내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잡으세요) 그녀는 장로교인 _이 아니기_ 때문입니다.

Nan의 교파는 기독교 교회(제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운동은 1800년대에 몇몇 전 장로교인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그 중 한 명은 알렉산더 캠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회 목사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알렉산더 캠벨에 관한 책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모든 것 중에서, 그의 격언 중 하나가 무엇보다도 나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를 의역하고 있지만, 옛날에 자신의 신학을 설명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알렉산더 캠벨은 그 질문에 작은 비유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아름다운 깃털을 보면 그것을 주워 모자에 넣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학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_깃털입니다_.

나는 곧바로 나서서 누군가가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내 신학이 ”새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친구들이여, 깃털은 새를 날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나 알로하,

론 목사